

##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5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백서\_서문

해마다 건축전과 미술전이 번갈아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항상 저는 신선한 충격과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2014년 건축전에서는 한국관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우리 건축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고, 2016년 ‘용적률 게임’ 전시는 주요 외신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건축을 세계무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관에 대해 “놓쳐서는 안 될 6개 국가관 전시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고, 영국 가디언지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힘을 보여준 우아한 전시”라고 언급했었지요.

한국관이 이러한 주목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성홍 예술감독을 비롯한 5인의 공동큐레이터 모두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이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60만동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촘촘하게 연결 짓는 작업을 위해 쏟은 날들이 모여 이룬 뜻깊은 성과입니다. 2016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은 한국 건축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며, 미래 우리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표적인 건축행사 중 하나이며, 한국관은 동시대 예술의 화려한 경연장에서 한국 미술과 건축을 소개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중요한 플랫폼이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해주신 김성홍 예술감독 그리고 신은기, 안기현, 정이삭, 김승범, 정다운 다섯 분의 공동큐레이터, 강성은 · 백승우 · 정연두 · 신경섭 작가, 스태프, 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인스파이어 IR, Duomo&Co 등 후원기업에 감사드리며, 또한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힘을 쏟아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오 정 희